



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가 지난 17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동계스포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열띤 경기를 벌였다. 이에 본보는 대회 현장을 둘러보았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기량 맘껏...

은빛 설원에서 펼쳐진 동계스포츠 축제



**사진=김민근 기자

◆ 초등학교부터 일반인들까지 동계스포츠에 자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회가 가진 장점중에 하나이다. 지난 17일 오전, 은빛 설원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열띤 경기를 벌였다.



기대감 가득한 시상식

대회를 마치고 나면 영광의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 기대감으로 들끓는 이 순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상이 수여된다.

1. 실력을 인정받아 기쁘게 상을 수여받은 초등학생 선수들.
2. 상장을 보여주고 있는 일반인 부문 수상자들이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